

사료수급 파란예상

—생산조절시급—

조 흥 래
〈한국사료협회 기획부장〉

1. 개 요

1976년도 상반기에 들어와 사료수요 증가가 현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양축가가 지난 74년말 부터 회복하기 시작한 축산의 호경기를 틈타 가축의 사육 규모를 크게 확장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최근의 가축별 통계를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는 알길이 없다. 그러나 초생추 출하상황통계 조차 의심치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사료공급량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금년도 1~4월까지의 양계용 배합사료가 전년 동기간에 비하여 45.6%나 증가하였는데도 초생추 출하통계는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월별로 전년대비 증가율을 살펴 보면 양계용 배합사료의 경우 1월에 48.7% 2월에 14.9% 3월에 46.1% 그리고 4월에는 78.9%나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와같은 추세로 사료수요량이 증가한다면 주원료인 옥수수 소맥피 대두박등은 물론 기타단백질사료나 무기물사료등 부원료의 수급사정 때문에 앞으로 배합사료생산이 계속 순조로울 것을 기대하는 것도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까 한다. 또한 최근에 들려오는 기상관계 소식을 들으면 금년의 미국의 기후가 농산물생산에 나쁜 영향을 미칠정도로 기후조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그리고 소련이 750만톤의 소맥과 사료곡물을 지난해에 이어 추가구매함으로써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곡물시세가 4월말을 기점으로 폭동하기 시작하여 옥수수의 경우 톤당 \$12~15이나 비싼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옥수수수요가 이와같은 추세로 증가한다면 최소한 당초계획보다 금년도에 15만톤 이상이 소요되므로 전년도로 부터 이월된 10만톤과 금년도 도입계획 48만톤을 가지고는 11월까지 밖에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여기에는 1개월간의 재고량등을 감안한다면 10월말 부터는 옥수수 수급에 적지 않는 파문을 던질것이 뻔하다. 또한 가격면에서 볼때 당분간은 문제가 적겠으나 현재까지 확보한 옥수수가 7월말이면 다 소진되기 때문에 앞으로 옥수수를 어떤 가격으로 사느냐에 따라 배합사료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다. 톤당 \$140 수준이하에서 구입이 가능하다면 사료가격 안정기급이 적립되어 있으므로 배합사료가격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겠으나 만약 기상학자들이 예측하는대로 농작물생산에 지장을 줄정도로 기후가 악화된다면 흉년을 대비하여 각국이 다투어가며 원료를 구매하게 될 것이므로 문제는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내다 보인다.

이상 지적한 사항들을 간추려 보면 첫째 국내적으로는 축산의 호경기를 틈타 모든 양축가가 과도하게 사육규모를 확장하고 있으므로 사료수요 급격한 증가를 갖어왔고

둘째 이와같은 사료수요증가에 따른 사료공급량은 물량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급상 차질이 예상되며

세째 소련의 미국산 곡물의 대량구매로 현재 국제곡물시세가 앙등세를 계속 보이고 있으며 넷째 금년도 기상조건이 식량생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정도로 악화될 전망이다 하며

다섯째 앞으로 8월부터 사용할 곡류사료가 어떤 수준에서 구매가능한가에 따라 하반기배

합사료가격이 극히 유동적인 현실이며 여섯째 부족사료 도입계획량의 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배합사료의 생산 제한이 불가피한 현실이기 때문에

일곱째 양축업계가 출선하여 자발적으로 생산조절을 실시하므로써 사료수급의 차질을 예방함은 물론 축산물의 적정생산으로 축산물가격의 적정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자조 협동정신을 발휘하였으면 한다.

2. 사료곡물의 국제동향

가. 금년의 기상전망

매년 년초가 되면 모든 나라들이 식량 및 사료곡물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것이 상례이다. 이와같은 원인은 경지면적에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곱해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반드시 따르기 마련인 것이 '기상조건이 양호하다면, 하는 단서가 붙는다 우리나라 축산업이 최근 10년 동안 사료원료의 일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수급의 안정을 기하려면 의례 미국의 사료곡물작황이나 대수요국가인 소련의 작황에 관심이 가게되고 또한 이들 국가들의 여건변동이 곧 전세계에 파급되어 사실상 우리나라에도 예외없이 그영향이 휘몰아쳐 왔던 사실들을 역역히 기억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료곡물을 수출하는 당사국 못지않게 금년에는 제발 기상조건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풍작이 들어 저렴한 가격으로 사료원료를 수입할 수 있었으면 하는것이 우리의 소원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을 외면하는듯 미국사료곡물협회 뉴스레터 5월호를 그대로 옮겨놓으면 장기기상관측자들은 금년의 일기가 농산생산에 나쁜 영향을 미칠것으로 추측되는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일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의 흐름이 5년의 호조주기가 끝나 금년에 불규칙한 상황을 나타낼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곡물생산이 감소하고 특히 소련농업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 같다고 전망하는 이도 있다 이밖에 가뭄이

주기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는 일부 기상학자들도 20년 가뭄주기 10년 가뭄주기 격년가뭄주기를 고려해도 금년이 바로 이 주기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과거 큰 가뭄이 있을 때마다 나타났던 태양폭풍의 활동감소로서도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의 기상전문가 P씨는 화성 금성 수성등의 위치로 보아 금년 여름에 중서부 지방에 한발이 있을 것이며 가을에는 서리가 일찍 내려 농작물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아이오아주립대학의 농경통계학교수 T씨도 금년 여름이 평년보다 고온건조해 옥수수생산이 예년보다 감소할것 같다고 전망했다. 여하튼, 기후조건이 양호하리라고 전망하는 기상학자가 없는 반면 대부분의 기상학자들이 금년기후조건이 악화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불안이 감돈다.

나. 미국의 사료곡물 작부계획

미국 농무성은 매월 1일 현재의 농민의 작부의향을 발표하고 있는 바 4월 1일 현재 76년도 사료곡물작부계획면적을 보면 옥수수가 6.2%증, 수수 2.1%감, 귀리 3.6%감, 보리 3.4%감, 사료곡물 합계 2.8%의 증가가 예상되며 밀이 4.4% 증 콩 9.6%감 쌀 16.6%감으로 나타나 있는바 대체적으로 사료곡물의 파종면적은 증가하리라 예상되며 5월중순 현재 옥수수등 사료곡물의 파종은 순조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현재 날씨가 선선하여 파종된 종자의 발아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파종이 순조로히 진행된다하여도 파종으로부터 생육시기를 거쳐 수확시기 까지의 기상조건이 사료곡물생산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기상학자들의 전망도 있어 예측을 불허하는 바이다

다. 사료곡물의 국제시세

금년도 1/13일부터 5/20현재까지의 미국시카고 곡물거래소의 선물거래가격을 기준한 사료 곡물의 국제시세를 한국도착기준으로 환산하여보면 옥수수의 경우 1월부터 점차적으로

하락하여 4월에는 5월선적의 경우 \$125에 거래되었으나 소련이 사료곡물과 소맥 750만톤을 4월하순에 미국으로 부터 추가 구매함으로써 4월 30일에는 \$126, 5/4일에는 \$129, 5/8일에는 \$131, 5/14에는 \$135, 5/15~19에는 \$139까지 상승하였다가 5/20일 현재 \$137 그리고 7월선적에 \$135, 9월선적에 \$131에 호가되고 있으며 대두박도 4월의 \$190에서 5/20 현재 \$213로 \$23이상 비싼가격으로 거래되며 7~9월선적에는 \$222을 호가하고 있다.

이와같이 소맥이나 사료곡물시세가 상승하고 있는 원인은

첫째로 소련이 미국으로 부터 750만톤이나 되는 다량의 곡물을 구매하였으며 둘째로 세계각국의 사료수요가 대체적으로 경기회복에 힘입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셋째로 금년도의 기상조건이 미국의 농작물 생산에 악영향을 미칠정도로 악화될 전망이다 하며

넷째 미국의 농민이 1973년도 국제곡물 파동 이후 생산한 곡물을 유리하게 판매하였기 때

〈표 1〉 사료곡물 및 소맥의 국제시세

단위 \$/C&F톤

거래일자	옥수수			대두박			소맥		
	5	7	9	5	7	9	5	7	9
1/13	132	132	—	—	—	—	156	156	—
2/12	130	131	—	191	194	—	166	166	—
3/10	129	130	—	190	193	—	160	162	—
4/13	125	126	124	188	192	195	148	151	154
4/23	125	127	127	190	193	191	149	152	154
4/27	125	127	125	190	194	196	144	147	148
4/30	126	127	125	190	194	195	141	145	148
5/4	129	129	128	190	194	197	143	146	147
5/8	131	131	129	201	202	204	143	146	149
5/11	133	132	129	203	204	205	144	147	150
5/14	135	134	131	210	213	213	151	153	156
5/15	139	138	134	211	214	215	154	156	159
5/18	139	136	133	214	218	219	152	155	158
5/19	139	136	132	215	219	218	151	152	156
5/20	137	135	131	213	222	222	150	152	155

문에 돈을 저할축 수가 있었고 또한 기상전망이 밝지 못하기 때문에 곡물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판매를 꺼려하는데 그 원인이 있지 않느냐 추측된다.

3. 배합사료생산추세

1976년 1~4월까지의 배합사료생산량을 전년 동기간과 대비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34%가 증가하였으나 이를 가축별로 보면 양계용 배합사료중 육추용사료가 59.6% 성계용사료가 육계용사료가 44.0%씩 각각 증가하여 양계용사료가 전체적으로 47.1%가 증가하였고 양돈용이 9.1% 낙농용이 5.7% 비육우용이 5.2%그

리고 농축사료가 337.7%가 각각증가하여 소 돼지 및 농축사료가 전체적으로 17.4%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표 2〉에서 특히 주목하지 않으면 안될것은 사료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2월에는 전년 2월대비 8.0%밖에 증가하지 않았으나 3월에는 33.8% 4에는 66.3% 달(月)수가 진행함에 따라서 전년 동월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양계사료의 경우 더욱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양계의 경우 육추용사료를 보면 전년 동월대비 2월에는 24.0% 3월에는 39.2% 4월에는 84.0%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초생후가 중추 대추로 성장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리고 더욱 증가율이 현저한 것은 양계용사료로서 전년 동월대비 2월에는 8.4%밖에 증가하지 않았으나 3월에는 36.5% 4월에는 105.6%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산란계용 사료는 2월대비 3월에는 약 7천톤이 증가하였으나 4월에는 3월에 비하여 800톤밖에 증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양계용사료 전체로 보아서는 전년 동월대비 2월에는 14.9% 3

월에는 46.1% 그리고 4월에는 78.9%가 각각 증가하여 앞으로 사료수요가 이와 같은 추세로 증가한다면 원료조달이 어려워 배합사료의 원활한 생산공급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따라서 주원료인 옥수수 소비량도 당초 계획인 월간 4만톤을 크게 초과하여 3월에는 4.8만톤 4월에는 5.3만톤 5월에는 거의 6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부원료의 대부분이 현재 수요 증가로 품귀상태

〈표 2〉 배합사료 생산실적(1~4)

단위 : 톤

월 별	구 분	양 계 용				양돈용	낙농용	비육우용	농축기타	계
		육추용	성계용	육계용	소계					
75.	1	6,934	26,268	4,515	37,717	12,217	13,241	3,416	1,029	67,620
	2	7,261	31,424	5,811	44,496	12,137	11,987	3,423	705	72,748
	3	7,019	28,495	6,452	41,966	11,330	14,449	2,933	1,092	71,770
	4	6,459	25,456	6,298	38,213	10,954	11,193	1,958	695	69,013
	소 계	27,673	111,643	23,076	162,392	46,638	50,870	11,730	3,521	275,151
76.	1	(60.4)	(47.2)	(39.2)	(48.7)	(8.3)	(19.3)	(△1.1)	(19.1)	(32.7)
		11,119	38,664	6,286	56,069	13,227	15,793	3,378	1,225	89,692
	2	(24.0)	(14.1)	(8.4)	(14.9)	(△11.5)	(△1.8)	(△105)	(161.0)	(8.0)
		9,002	35,844	6,297	51,143	10,742	11,770	3,064	1,840	78,559
	3	39.2)	(50.0)	(36.5)	(46.1)	(18.4)	(△7.5)	(16.9)	(310.7)	(33.8)
		9,772	42,730	8,808	61,310	13,414	13,360	3,429	4,485	95,998
	4	(84.0)	(35.4)	(105.6)	(78.9)	(23.2)	(15.8)	(25.9)	(979.0)	(66.3)
		11,887	43,535	12,949	68,371	13,490	12,964	2,465	7,499	104,789
	소 계	41,684	160,747	33,939	236,370	50,881	53,787	12,336	15,413	368,787
	증가율 (%)	50.6	44.0	47.1	45.6	9.1	5.7	5.2	337.7	34.0

() 내는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임

를 나타내어 원료수급상 배합사료 생산을 제한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은 이해하시기 바라며 이와같은 결과는 양계산물의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한 하반기 어느 시기에 가서는 양계산물생산 과잉현상을 유발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4. 주요원료수급과 시세

위에서 배합사료생산량의 급격한 증가추세를 설명한바 있으나 이와같이 급증하고 있는 배합사료의 원활한 생산 공급을 위해서는 이에 비례하여 원료공급의 원활을 기하여야 하나 원료공급에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원료수급의 적정화를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가. 곡류사료의 수급추정

1~4월까지의 사료용 옥수수 소비실적을 감안하여 앞으로의 배합사료용 곡류수급 추정을 하여 보면 (표 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2월에는 평균 약 4만톤을 소비하였으나 3월에는 4.8만톤 4월에는 5.3만톤 5월이후에는 5.8~6만톤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연간 사료곡물의 추소요 구량은 당초 계획 48만톤 보다 15만톤 이상~20만톤 가까이 증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5/20현재 확보하여 도착예정인 옥수수는 161천톤으로서 (표 4)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7월까지 전량 국내에 도착될 예정이다 이와같은 물량은 7월까지밖에 사용될 수 없는 실정에 있

〈표 3〉 곡류사료(옥수수) 수급 추정

단위 : 천톤

구분	'75년 이월	월 별 수 급 추 정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월월	103.5	103.5	61	63	76	23	45	46	68	70	35	20	25	103.5
도입			40	61	—	80	59	80	60	20	40	60	133	693
공급계	103.5	103.5	101	124	76	103	104	126	128	90	75	80	158	736.5
수요		42.5	38	48	53	58	58	58	58	55	55	55	55	633.5
재고(월말)	103.5	61	63	76	23	45	46	68	70	35	20	25	103	103

※ 당계 계획

'75년말 이월량 12만톤
'76년도 도입계획 48만톤

계 60만톤
수요량 48만톤
'76년말 재고 12만톤

을 뿐만 아니라 사료곡물의 국제시세가 5월에 들어와서 톤당 \$10~15이 오르고 있어 8월부터 사용할 옥수수 구매단가 여하가 크게 주목되고 있다. 현재 국제곡물시세는 세계적으로 경기회복세를 타고 사료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금년에는 이상기후가 내습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를 기화로 미국의 농민들이 판매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산 옥수수의 생육시기인 여름철로부터 수확시까지의 기상조건이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나. 주요단미사료시세

배합사료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주요단미 사료시세가 계속 앙등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품귀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구하기가 어

렵고 또한 품귀현상을 이용하여 원료사료인 단미 사료의 품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심한 경우 풀분의 예를 들면 kg당 120원에 구하

〈표 4〉 사료용 옥수수 도착 상황

	도착 예정량	C&F 톤당가격	선적월	도착예정	도착항
1)	38,322	126.27 / 127.26	4.5	5.12	인천·부산
2)	44,000	126.35	4.26	5	인천
3)	20,000	127.41	5.15	6.20	인천
4)	19,000	126.60	5.10	6.15	부산
5)	40,000	128.04	5.15 ~ 6.5	7	인천
계	161,322				

기도 어려운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폐분의 혼입율이 자그만치 수십 %에 달한다는 이야기를 들을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금일 5/15현

〈표 5〉 주요 단미사료 시세

단위 : 원/kg

종 류	서울 지방 도매시세						1976. 5. 15 (%)		
	75.		76.		76.		75.		76.
	5.15	76.	4.15	76.	5.15	75.	5.15	76.	4.15
도입 옥수수	96.53	76	76	76		△21.3		0	
국산 "	91.59	93.30	101.45			10.8		8.7	
대두박	127.70	116.50	116.50			△ 8.8		0	
입박	84	93	94.50			12.5		1.6	
호박	83.33	93	94.50			13.4		1.6	
채종박	71.25	87	89			24.9		2.3	
옥수수배아박	57.50	50	69.50			20.9		39.0	
" 구르넨	110	127.50	127.50			15.9		0	
백강	38.50	—	—						
탈지강	41.10	61.50	68			65.5		10.6	
소맥피	21	46	46			119.1		0	
어분상품(65%)	148	175	169.50			14.5		△3.1	
" 중품(50%)	118	130	134			13.6		3.1	
풀분	80	115	120			50.0		4.4	
인산칼슘계	140	—	162.50			16.1		—	

제시세를 전년 5/15일자 시세와 비교할때 도
입옥수수과 대두박을 제외하고는 최하 12%에
서 최고 120%까지 앙등하고 있으며 전월 12
일 시세와 비교하여 보아도 각종박류가 1.6~
2.3%가 그리고 그밖의 강류사료가 10.6% 어
분중품골분등이 3.1~4.4%나 오르고 있을 뿐
아니라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수요충당
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5. 전망과 대책

가. 전 망

금년도에 들어오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
든 가축이 전반적으로 증식되었고 경영규모도
점차적으로 전업내지는 기업화되어 가고 있어
배합사료의 수요량이 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
다. 따라서 이와같이 급격한 사료수요를 충족
하기 위해서는 배합사료원료의 원활한 공급이
전제되어야 하나 공급량이 수요에 미달되기
때문에 품귀현상을 유발하여 원료의 적정구입
이 어렵고 또한 배합사료원료의 주종을 이루
고 있는 옥수수만 보더라도 당초계획에 비하
여 적어도 30~40%증가 되지 않으면 안될 실
정에 있으나 국제적인 수요량증가, 기상조건
의 악화예상, 소련의 추가곡물구매, 미국농민
의 조기판매피현상 등으로 앙등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추가곡물구매(8월 부터의 사용분)의
전망이 어두운 실정에 있다. 소맥피 생산량은
예상외로 빨리 회복되어 월간 소맥가공량이 13
만톤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겨우필
요한 물량을 조달할 수 있을뿐이고 전혀 여유
가 없다 또한 대두박은 5만톤의 대두가 책정
되었으나 현재와 같은 추세로 소비된다면 년
간 책정된 물량이 3/4분기중에 소진될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양계사료에 있어서는 소량이
지만 무시 할 수 없는 인공급제가 이제까지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였으나 당국에서 이의필
요성을 인식하고 우선 150톤만이라도 수입하
도록 조처한 처사에 대하여는 참으로 업계의
실정을 이해여 주었다는 점에서 감사를 드리
는 바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물량은 극히 미

소한 물량이기 때문에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될
지언정 그 양이 절대부족하기 때문에 합리적공
급방안을 계속 강구하여 줄것을 바라마지 않
는바이다. 앞으로 국산박류사정은 채종박생산
과 어분의 시장 출회증가로 어느정도 해결되
리라 기대되나 급격한 수요증가 때문에 쉽사
리 회복되지 않을것으로 전망된다.

이상과 같은 원료수급사정과 가격(시세) 추
세를 감안할 때 금년도 하반기에는 수요가 현
재 추세대로 증가하게 된다면 국내적으로나 국
제적인 사료원료수급사정으로 말미암아 가격
변동의 가능성이 충분히 내다 보이는 것이 오
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지적해 두는 것이다.

나. 대 책

그러므로 앞으로의 사료파동과 양계산물 과
잉생산에 의한 양계산물의 가격하락을 미연에
방지하고 양계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양계업계가 출산수범하여 사업규모
의 확장을 억제하고

둘째로 일시적인 입란 부화증지등 생산조
절을 적극 실시하고

셋째로 경제성이 낮은 노계등은 빨리 도태하
여 닭의 생산성과 사료효율을 높이도록 하며
넷째로 일단 증식된 가축이 필요로 하는 사
료는 수급상 차질이 없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사료원료공급에 적정을 기하지 않으면 안될것
으로 믿어진다.

끝으로 이와같은 현상이 야기된 이면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양계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사육규모를 일시에 대폭확장하여 한몫
보겠다는 소망이 그 주요원인이 되고 있으므
로 이와같은 책임은 전적으로 양계가의 책임
으로 귀착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만약 양계업계가 계속 생산 조절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료업계는 부득이 원료
사료공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배
합사료의 생산을 제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을 심분 유의하셔서 대한양계협회에 중심이되
어 일시적인 입란 및 부화증지등 생산조절 대
책을 강구해 줄것을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